

# 基督教人の 家庭倫理實踐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Practicing of Christian's Family Ethics

오산대학 여성교양과  
조 교수 丁海恩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李貞德

Dept. of Woman's Culture Osan College

Associate Prof.: Hae Eun Cheong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Doog-Guk University

Prof.: Chung Duk Lee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분석 |
| II. 성경에 나타난 가정윤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By researching the situation of family ethics and practice that is being conducted in Christian family of Korea, we will see what Korean church can do for the Korean family and forming family ethics of Korea.

For this purpose, survey was conducted from 9th to 21st of September(1998). 670 people(male and female who are Christian)who have one or more child from 10 churches of Seoul area and 8 churches of Kyunggi province were selected to be test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following methods ;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f-test,  $x^2$ -test,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practicing of christian's family ethics for testees was also very good. Especially, it was prominent in wedding ethics, and in education of ethics to children. ② Among the socio-demographic

\* 본 연구는 정해은(1998)의 "기독교인의 가정윤리의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variables, religious background of family and education are prominent variables for the practicing of christian's family ethics.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결혼 및 혈연에 기초한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친밀한' 환경으로서 사회와 격리된 사적인 공간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 구성원간에 애정을 주고받는 심리적 신체적인 휴식의 장소로서 성역화 되고 있는 것이 산업사회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자(김광일, 1988:99).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한 사례연구들(곽배희, 1994: 71~108)과 신문지상에 나타난 가족문제를 보면 증가하는 이혼율, 혼전·혼외 관계, 폭행, 학대, 의처·의부증, 가출, 별거 등의 병리적 가족의 증가와 부모 살해, 자식살해 등의 패륜범죄(김일명, 1995:2)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바른 윤리에 대한 基準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제까지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는 가정학, 사회학, 역사학, 여성학, 윤리학, 교육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인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윤리의 명칭이 붙은 논문은 수 편(이정덕, 1992; 송순, 1993; 지영숙, 1994; 김일명, 1995)에 불과하며, 대부분 효에 초점을 두거나, 제·의례 등 부분적으로 가정윤리를 다루었거나, 가족 가치관을 다룬 논문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의 전통적 가정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 유교, 원불교 등의 윤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 관점에서의 가정윤리 연구와 더불어 실천적 측면의 가정윤리 연구가 필요하며, 서구문물의 도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적 가정 윤리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 종교인구의 약 40%(통계청, 1997:489)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현재도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전통의 혼재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부부관계는 유교적 전통과 서구의 개인주

의적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전통의 이타적 사고방식이 혼합되어(김용태, 1996:44)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쌍무적인 협력관계 대신 여전히 지배 복종의 차별적 삶이 유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자녀관계 역시 자녀를 내 가정의 영예를 나타내는 수단적 존재로 또한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정관,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등을 평등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기독교 윤리로서 조명해 봄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 연구된 기독교의 가정윤리는 제사에 관한 논문과, 성과 결혼에 관한 논문, 자녀교육관련 논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가정 전반에 걸친 윤리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의한 신앙생활 및 믿음의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갈수록 많아져 가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급속도의 양적 성장을 한 우리 나라 기독교의 성경적 가정윤리를 고찰해 보고 현대 한국 기독교인의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의 상황을 조사해 봄으로써 기독교가 앞으로 좁게는 현대 기독교 가정을 위해, 넓게는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가정윤리형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기독교인의 가정 윤리실천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성경에 나타난 가정윤리의 고찰

### 1. 가정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곧 사람 자체가 신성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2장 22절-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라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창조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그 가정은 신성한 사람인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함부로 나뉘거나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神的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일단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품 즉 부모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곧 經濟的·文化的 의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가정의 중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새로운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강경호 외, 1996:12-18). 이것은 그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배경에서도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며, 이는 현대사회의 부부중심의 축 강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가정의 창조 이유가 나온다. “독처하다”의 원어 상 의미는 ‘cut off’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 몸이었던 여자가 남자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독처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어 다시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의 창조 이유

로 보는 것이며, 자녀도 이러한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출산하도록 했다. 이는 창세 때부터 성 관계가 부부관계를 하나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부부 두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경에 나타난 가정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정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들이 흔들리면서 여러 제도와 질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조직한 사회이고, 최초로 복내려 주신 곳(창 1:28)이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협력관계로 ‘하나’될 때 현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본다.

### 2. 결혼의 윤리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다(창2:18-24).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례자가 되어 혼인 예식을 친히 진행하는 가운데 “그(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는 예식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혼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神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결혼에 대한 신약의 입장은 마가복음 10장 2절-9절에 있는 이혼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창1:27; 2:24) 이 결혼의 연합을 인정하고 주도하였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도록 훈계하고 있으며, 결혼은 창조의 질서이고 그러므로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딤후전 3:2,4,12). 즉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차원으로 제정한 제도로서 인간이 이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창 1:27) 돕는 배필(창 2:18)로 여자를 하나만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두 번

제 부인인 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חַרָּה)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괴롭히는 자' 또는 '경쟁하는 부인'이라는 의미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대적'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R. 레어드 헤리스, 1974:128).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고대인들은 다처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며, 창세기 21장 8-12절에서도 일부일처제를 버림으로 화를 입은 것이 묘사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차원으로 제정하신 제도로서, 평생의 일처제를 바른 혼인관계로 삼으려 했으며, 이는 결혼제도의 신성과 결혼제도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신뢰, 연합이라는 결혼관의 기본정신이 나온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바른 결혼관 정립을 위해서도 기독교 결혼관은 매우 유의하며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정신으로 볼 수 있다.

### 3. 부부간의 윤리

기독교적 부부관계의 기초는 가정과 결혼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두 사람이 하나라는 것(원호택, 1995:61)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 남편의 윤리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윤리는 신명기 17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한 아내와만 결혼함으로써 그 아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7장 4절-5절, 8절-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부부는 늘 분방해서는 안된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피차 의무를 다하라는 결혼 생활의 바른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이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엘가나는 그 당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소박, 멸시를 거부하고 아내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하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머리는 하나님이 시지만 삼위가 동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과 아내, 아이들 모두 동등하다는 내용이다.

#### 2) 아내의 윤리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실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말하며, 수확의 해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아내가 내실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집안의 기쁨임을 묘사하고 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고 남편을 믿게끔 만들며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로 묘사되고 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하고 있으며, 7장 10절에서는 이혼에 대해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서 갈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할 길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כָּנָה)라는 단어인데 이는 자신을 '낮추다, 굴복시키다, 낮은, 아래'의 뜻이다. 즉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으로, 이는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8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는 말은 처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나 그 후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내

용으로 부부는 피차 의존하는 관계이며 동등하다(정규남, 1994:177) 라는 의미이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3절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는 뜻은 아내는 노예가 폭군적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그의 남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그의 남편을 경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존경, 사랑 감사와 복종의 연합이다(차원봉역, 1978:165) 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전통의 혼재속에서 살고 있다. 교회에서 남편을 섬기라는 성경적 가르침은 유교적 전통의 여필종부의 의미와 맞물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등’이라는 성경의 참 의미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아내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희생을 강요한다. 성경적 의미에서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식의 가르침은 오히려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의무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김용태, 1996:45).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교적 전통의 고정된 역할에 의한 부부관계와 서구적 전통의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한 부부관계가 성경적 의미의 사랑에 의한 자발적 부부관계로 변화되어야, 즉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쌍무적 협력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부부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바른 부부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올바른 부부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및 사랑과 협조를 통한 부부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 부모자녀간의 윤리

##### 1)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윤리를 다른 어떤

한 윤리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지켰을 때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일부인 제 5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내용이 있다. 곧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면 자녀에게는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쓰여있다. 여기서 부모를 경홀이 여기는 경홀은 구약성경에서 바자(פִּזְזָה)로 쓰인다. 이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알보다’라는 뜻으로 조금 무시의 단계에서 완전히 경멸하는 단계까지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도 부모를 경홀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강하고 단호한 표현인 것이다. 이외에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로 잠언 1장 8절-18절에서 자녀는 부모가 행하는 교육을 잘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잠언 19장 26-27절에서는 부모학대, 즉 부모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가 하는 교육 중에서 지식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교육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잠언 23장 25절은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윤리는 인륜의 관계를 떠나서 신본주의 윤리에 입각하고 있다.

#####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민족으로 교육의 전 과정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부모는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배웠던 것을 알게 해야 하는 즉 교육해야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신4:10, 엡6:4, 창 34:30, 잠1:8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함에 있어 엄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잠 3:12), 반대로 자

녀들의 고통이나 마음을 달래어 그들을 이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시103:13)고 말하고 있다. 신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마태 복음 7장 11절에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물질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후반부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공경과 사랑의 관계이다(엡 6:1-4).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이러한 공경과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좁게는 현대 기독교 가정과 넓게는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간의 윤리 정립을 위해 올바른 부모자녀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 사랑, 훈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변인선정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윤리 관련연구(안희삼,1986;설봉식,1987;전미향,1988;한명상,1988;황인실,1988;신중옥,1990;강숙경,1992)를 참고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 가족의 종교적 배경(종교)을 선정하였다.

##### 2) 척도개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을 조사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을 측정하는 도구를 성경의 주제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연구자의 박

사학위논문참조).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척도는 총 57개 문항에서 관련교수와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신학 대학원생에게 직접 안면 타당도를 받은 후 50개 문항이 예비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총 50개 문항 중 문항양호도 검사를 통해  $p<.001$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한 2개 문항(질문 1번, 질문 16번)과 AIC검사를 만족시키지 못한 3개 문항(질문 2번, 질문 4번, 질문 5번)을 제외한 총 45개 문항을 본 조사를 위한 최종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용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KMO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KMO=.960$ 으로 모든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45개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이 높음을 나타낸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척도의 Cronbach's Alpha=.96(표1)으로 높은 신뢰도가 나왔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 실시에 앞서 1998년 4월 13일에서 4월 24일 사이에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기독교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를 위한 최종문항을 선택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서울 10교회, 경기(인천, 안산, 안양, 일산) 8교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기독교인 남녀를 대상으로 총 8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20부(87.8%)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서울지역(418부, 58.1%)에서의 표본이 경기지역(302부, 41.9%)보다 다소 높았다. 이중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50부를 제외한 총 670부(81.7%)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문항수 및 신뢰도

척 도		문항수	cronbach's alpha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전체	45	.96
	사회적 윤리교육 중시	12	.93
	가족간의 화목 중시	10	.92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	7	.89
	부모역할 중시	5	.84
	가족의 영적생활 중시	4	.81
	결혼윤리 중시	4	.72
	성윤리 중시	3	.8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0)\*

사회인구학적 변인				N(%)	사회인구학적 변인				N(%)	
성별	남			287(43.6)	가족의 종교적 배경	배우자	기독교		534(90.8)	
	녀			372(56.4)			천주교		6(1.0)	
연령	20대	남	33(37.9)	87(13.1)			불교		34(5.8)	
		녀	54(62.1)				유교		14(2.4)	
	30대	남	78(41.9)	108(58.1)			부모 (시부모)	기독교		276(61.2)
		녀	108(58.1)			일부기독교		39(8.6)		
	40대	남	87(41.6)	122(58.4)		무교		63(14.0)		
녀		122(58.4)	비기독교			73(16.2)				
50대 이상	남	87(48.3)	93(51.7)	180(27.2)		친정부모 (장인장모)		기독교		265(59.3)
직업	가정주부			253(40.8)			일부기독교		35(7.8)	
	노동.생산.서비	남	54(66.7)	27(33.3)	무교		68(15.2)			
	자영.상공인	남	53(72.6)		비기독교		79(17.7)			
	사무직	남	38(67.9)		18(32.1)	교육				
	교직.전문.관리	남	115(73.2)			107(16.3)		수준	100만원 이하	
101만-150만원			199(30.3)			중졸 이하			25(34.7)	47(65.3)
151만-200만원			195(29.7)	고졸		86(31.0)	191(69.0)		277(42.3)	
201만-250만원			73(11.1)	대졸		129(51.6)	121(48.4)		249(38.0)	
250만 이상			107(16.3)	대학원 이상		44(81.5)	10(18.5)		54(8.2)	

\* 무응답으로 인해 각 변인의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직업의 무응답에는 무직이 포함되어 있음.  
 배우자, 시부모, 친정부모의 무응답에는 사별이 포함되어 있음

3. 자료분석방법

SPSS/PC+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법 (Scheffe Test) 및 t-test, 요인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수준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은 <표 3>과 같다.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전체는 평균 4.09로 중간값을 3점 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을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윤리 중시가 평균 4.30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윤리교육 중시 4.27, 부모역할 중시 4.17, 성윤리 중시 4.04, 가족간의 화목 중시 4.03,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 4.02, 가족의 영적 생활 중시가 평균 3.51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인의 결혼윤리실천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윤리교육 중시가 높게 나타나 기독교 가정은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윤리관에 부합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실천에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윤리교육 중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가 평균 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윤리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가 4.14로 가장 낮았으나 하나의 변수로 보았을 때는 아주

<표 3>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의 요인별 정도

내 용	N	M	SD
<b>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전체</b>	573	4.09	.50
<b>사회적 윤리교육 중시(요인1)</b>	629	4.27	.53
자녀들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657	4.46	.61
자녀에게 뒷사람에 대한 공경심과 예의를 가르치고 있다	656	4.39	.65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655	4.32	.63
나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가르친다.	660	4.30	.65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치고 있다	653	4.27	.66
자녀들이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656	4.26	.68
자녀가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655	4.24	.66
자녀들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53	4.22	.71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다	650	4.21	.71
흡연과 음주의 금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647	4.18	.92
자녀들이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655	4.16	.76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윤리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657	4.14	.77
<b>가족간의 화목 중시(요인2)</b>	640	4.03	.59
나는 배우자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669	4.28	.68
자녀가 힘들 때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659	4.12	.73
우리 부부는 서로 믿고 존중하며 살고 있다.	669	4.08	.78
우리 부부는 서로 돌보고 섬기며 살고 있다	666	4.07	.78
우리 부부는 평등한 관계로 살고 있다	668	4.01	.80
우리 부부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	665	3.98	.83
우리 가정은 서로 긍정적이며 서로 도와준다	669	3.96	.80
우리 가정은 항상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665	3.95	.81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664	3.92	.79
우리 가정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667	3.78	.84



〈표 3〉 계속

내 용	N	M	SD
<b>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요인3)</b>			
배우자의 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	659	4.15	.71
나는 배우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하고 있다.	667	4.10	.76
우리 가정은 항상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664	4.08	.76
배우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666	4.06	.72
우리 가정은 의사소통이 잘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	666	3.99	.77
나는 배우자의 영적생활에 영향을 줄 생동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665	3.93	.84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있어서 배우자와 공통점이 많다.	665	3.78	.90
<b>부모 역할 중시(요인4)</b>			
자녀들을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	659	4.35	.70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한다.	666	4.30	.79
배우자를 위해 늘 기도한다.	666	4.21	.83
우리 부부는 인격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다	662	3.99	.81
내가 희생하더라도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	667	3.98	.84
<b>가족의 영적 생활 중시(요인5)</b>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말씀을 가르친다.	655	4.00	.91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에게 늘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665	3.60	.86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예배를 함께 드린다.	651	3.43	1.09
우리 가족은 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	659	3.00	1.08
<b>결혼윤리 중시(요인6)</b>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평생의 언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667	4.38	.70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있는 사랑의 선물인정	667	4.37	.85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혼은 않한다	665	4.25	.84
나의 자녀의 경우 결혼은 꼭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648	4.21	.90
<b>성윤리 중시(요인7)</b>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순결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며 살고 있다	663	4.23	.75
자녀에게 남녀간의 순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653	4.07	.83
자녀에게 성윤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655	3.82	.87

높은 점수였다.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회 윤리 교육을 중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실천정도가 무척 높았는데, 이는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마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은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 사랑, 훈육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가족간의 화목 중시는 '나는 배우자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서로 믿고 존중', '서

로 돌보고 섬기며', '평등한 관계' 등이 평균 4.0 이상으로 이들의 실천이 높은 편이었으나, '우리 가정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평균 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독교 가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협력관계를 가정생활에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원 개개인의 시간의

투자와 대화를 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등의 실제적 행동은 다른 것에 비해 실천이 낮아서 현대 기독교 가정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는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및 사랑과 협조를 통한 부부관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에 비해 점수가 낮아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은 부부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통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위주의 가족의 삶이 보편적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결과라 하겠다. 부모 역할 중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들을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와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한다'가 높게 나타나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가족간의 영적 생활 중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말씀을 가르친다'가 평균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예배를 함께 드린다'(3.43), '가족은 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3.00)등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큰 덕목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가정은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고 있지 못한 가정이 많다. 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신 훈육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어, 영적 생활의 의식과 행동간의 괴리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기독교인의 결혼윤리 중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평생의 언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천도 제일 높았다. 성 윤리 중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순결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며 살고 있다', '자녀에게 남녀간의 순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며 실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결혼관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어서, 가문 중심의 결혼관을 개인중심의 결혼관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는 역기능도 가져오게 되어, 성의 개방화는 성도덕의 문란을 야기시켰으며,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비기독교 가정뿐 만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때에 다른 실천보다도 결혼윤리와 성윤리 실천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은 <표 4>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교육, 직업, 수입, 가족의 종교적 배경)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은 배우자의 종교( $p<.01$ ), (시)부모의 종교( $p<.01$ ), 교육( $p<.05$ )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불교보다,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비기독교인 경우보다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이 높았다.

하위요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윤리교육 중시에서는 연령과 (시)부모의 종교만이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한 사회적 윤리교육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가족간의 화목중시에서는 특히 교육( $P<.001$ )과 (시)부모의 종교( $p<.001$ ), 배우자의 종교( $p<.01$ ), 친정(처가)부모의 종교( $p<.05$ ), 연령( $p<.05$ )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불교인 경우보다,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비기독교인 경우보다 가족간의 화목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에서는 연령과 교육( $p<.01$ ), (시)부모의 종교( $p<.05$ )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

〈표 4〉 사회적·구학적 변인에 따른 기독교 가정윤리실천

구분	집단	기독교가정윤리실천																
		전체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M	S	M	S	M	S	M	S	M	S	M	S	M	S	M	S	
성	남	4.08		4.24		4.05		4.04		4.08		3.56		4.31		4.00		
	여	4.10		4.29		4.00		4.00		4.23		3.47		4.28		4.07		
	t값	.16		.88		1.07		.52		10.0**		1.63		.41		1.83		
연령	20대(a)	4.17		4.30		4.15		4.21		4.17		3.71		4.23		4.09		
	30대(b)	4.08		4.28		4.04	a,d	3.97	a,b	4.19		3.44		4.22		4.09		
	40대(c)	4.14		4.33		4.05	a,d	4.04	a,d	4.20		3.52		4.37		4.09		
	50대이상(d)	4.01		4.17		3.92		3.95		4.10		3.47		4.30		3.91		
	F값	2.61		2.86*		3.16*		4.26**		1.04		2.40		2.43		2.75*		
교육	중졸이하(a)	3.99		4.20		3.88	a,c	3.94		4.15		3.32	a,d	4.35		3.96		
	고졸(b)	4.04		4.26		3.92	a,d	3.94		4.13		3.39	a,d	4.23	b,d	3.98		
	대졸(c)	4.12		4.26		4.12	b,c	4.09	b,c	4.16		3.61	b,c	4.28	c,d	4.10		
	대학원이상(d)	4.26		4.44		4.26	b,d	4.14		4.36		3.80	b,d	4.62		4.14		
	F값	3.57*		2.24		8.90***		3.79**		2.18		7.50***		6.10***		1.93		
직업	가정주부(a)	4.08		4.29		3.97		3.97		4.23		3.39		4.33		4.07		
	노동·생산·서비스직(b)	4.06		4.27		4.03		4.03		4.10		3.52		4.17		4.05		
	자영·상공인(c)	4.09		4.26		4.01		4.02		4.10		3.52		4.37		4.08		
	사무직(d)	4.14		4.29		4.09		4.11		4.15		3.64		4.10		3.93		
	교직·전문직·관리직(e)	4.06		4.19		4.05		4.02		4.10		3.56		4.29		3.99		
	F값	.27		.83		.72		.68		1.47		1.77		2.63*		.65		
수입	100만원이하(a)	4.04		4.30		3.90		3.87		4.20		3.39		4.25		4.11		
	101만-150만(b)	4.09		4.275		4.03		4.05		4.17		3.50		4.22		4.02		
	151만-200만(c)	4.07		4.22		4.03		4.02		4.12		3.53		4.27	b,e	4.00		
	201만-250만(d)	4.16		4.31		4.08		4.12		4.21		3.60		4.39		4.01		
	251만이상(e)	4.11		4.277		4.06		4.01		4.20		3.54		4.46		4.11		
	F값	.60		.59		1.09		1.86		.51		.75		3.41**		.59		
가족의 종교적 배경	배우자	기독교(a)	4.13		4.30		4.06		4.06		4.20		3.57		4.34		4.07	
		천주교(b)	4.10	a,c	4.46		4.05	a,c	4.02		4.37		3.08	a,c	4.17	a,c	3.83	
		불교(c)	3.81		4.09		3.71		3.72		4.07		2.88		4.04		3.80	
		유교(d)	3.95		4.15		3.89		3.90		3.95		3.17		4.13		3.87	
		F값	4.37**		2.03		3.96**		3.92		1.35		10.26***		3.19*		2.13	
	시·부모	기독교(a)	4.17		4.33		4.12		4.07		4.22		3.66		4.35		4.11	
		일부기독교(b)	4.04		4.20		4.07	a,d	4.05	a,d	4.12		3.45	a,c	4.22		3.94	
		무교(c)	4.03	a,d	4.18		3.99		3.99		4.14		3.37	a,d	4.15		3.95	
		비기독교(d)	3.93		4.17		3.78		3.85		4.02		3.09		4.22		3.94	
		F값	5.10**		2.97*		7.19***		2.85*		2.28		11.64***		2.49		1.88	
처가·친정	기독교(a)	4.12		4.28		4.08		4.05		4.18		3.58		4.34		4.09		
	일부기독교(b)	4.16		4.37		4.02		4.06		4.24		3.51		4.33		3.90		
	무교(c)	3.94		4.12		3.90		3.90		3.96		3.27	a,c	4.10		3.91		
	비기독교(d)	4.03		4.21		3.91		3.91		4.13		3.31		4.14		3.89		
	F값	2.52		2.17		2.76*		1.99		2.45		4.07**		4.05**		2.44		

\* P<.05    \*\* P<.01    \*\*\* P<.001

을수록,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비기독교인 경우 보다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역할 중시에서는 성( $p < .01$ )에 따라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부모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생활 중시에서는 배우자의 종교, (시)부모의 종교( $p < .001$ ), 친정(처가)부모의 종교( $p < .01$ ), 교육( $p < .001$ )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불교인 경우보다,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무교와 비기독교인 경우보다 가족간의 영적 생활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결혼윤리 중시에서는 교육( $p < .01$ ), 수입( $p < .01$ ), 친정(처가)부모의 종교( $p < .01$ ), 배우자의 종교( $p < .05$ ), 직업( $p < .05$ )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집단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불교인 경우보다, 친정(처가)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기독교인의 결혼윤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리 중시에서는 연령에 따라서만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의 가정윤리의식과 윤리실천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고,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의 축적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 탐색적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만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가정윤리 실천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종교적 배경과 교육이 가정윤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의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은 기독교인의 결혼윤리 실천면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사회 윤리교육 중시의 실천, 부모역할 중시, 성윤리 중시, 가족간의 화

목 중시,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 가족의 영적 생활 중시 순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낙태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가정해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비기독교 가정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다른 실천보다도 결혼윤리와 성윤리 실천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사회윤리교육 중시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핵가족화에 따라 부모나 기존 규범의 영향권에서 벗어남으로써 자녀들의 탈선행위가 늘어나고, 부모자녀간의 대화단절로 인한 갈등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은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 사랑, 훈육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반면 많은 기독교 가정이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오늘날 간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정서적 측면 중시가 다른 요인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은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및 사랑과 협조를 통한 부부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통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위주의 가족의 삶이 보편적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독교 가정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가정윤리를 잘 인식하고 이에 따라 실천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가정은 유·불·선·무속의 전통적 사고와 기독교적 전통의 혼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원 사이에 윤리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에서 정착된 가족원의 역할 기대와 한편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가족원간의 역할기대와의 갈등이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에 의한 관계로 변화될 때 가족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오늘 의 사회에서 가족의 결속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돌보며 사는 동태적·실천적 행동원리를 기독교 가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가족의 종교적 배경과 교육이 가정윤리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시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종교적 배경은 크게 부모의 가정, 본인의 가정, 결혼으로 연결된 시가(처가)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중원(1988:25~33)은 현대 가족의 제 문제를 예로 들면서 특히 최근의 가족갈등 양상 중 중요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데 따른 양상, 특히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하는 며느리의 종교가 원인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문제는 개신교, 카톨릭 등 기독교가 팽창하고 다종교 사회가 형성되면서 비롯된 새로운 가족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종교적 배경의 일치여부는 특히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가족원간의 가치 갈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부간의 문제, 부모자녀간의 문제 등 여러 종류의 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기독교 가정윤리실천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됨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교회에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이외에 실천적 차원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지역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음에 비추어 실증조사의 대상으로 모든 교단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보편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기독교 가정윤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때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가정윤리가 한국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서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보다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포용적인 윤리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는 제도적 면에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공동 운영하는 지역

상담소를 설치하여 청소년 상담, 혼전상담, 결혼상담, 이혼상담, 재혼상담, 성 상담 등의 면에서 예방과 치유를 같이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천주교의 부부일치(marriage encounter)운동과 유사한 개신교에서의 부부 행복만들기(marriage enrichment)등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제까지의 내용이해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사회적 지원체제를 형성하는 일인데, 교회가 확대가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설치, 성경의 윤리를 적용한 부부관계 세미나, 부모교육, 예비 부부교육, 부모자녀중심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경호·조성춘 공저(1996). 결혼과 상담. 서울: 요나출판사.
- 강숙경(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배희(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4).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 서울: 광화문.
- 곽정희(1988). 한국 가정윤리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중원(1994). 현대 가정의 문제. 가정가꾸기 운동 학술회의. 성균관.
- 기독교 대백과 사전(1980). 서울: 기독교문사.
-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가족상담소(1996). 기독교 가정의 갈등 및 그 해소 방안.
- 김광일(1988).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일명(1995).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명·이정덕(1994). 한국의 가족문제 및 가족윤리

- 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논문집.
- 대한기독교서회(1989). 개역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 R.레이드 해리스 외 2인(1974). 구약원어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 설봉식(1987). 한국 개신교인의 윤리성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 순(1993). 유교·원불교사상에 나타난 가족윤리와 아동교육.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안희삼(1986). 부모의 사회계층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윌버. 윌드, 차원봉 역(1978). 에베소서 주석. 서울: 태광출판사.
- 이정덕(1992).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향(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영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정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80.
- 채서일(1998).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통계청(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한명상(1988). 전통윤리의식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황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W., & Ross, J.M.(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sset, R.L., Sadler,R.D.(1981). Kobischen, E.E., Skiff, D.M., Merrill, I.J., Atwater, B.J., & Livermore, P.W. The Shepherd Scale : Sepa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
- Durkheim, E(1975). Suicide. trans J.A.Spaulding and G.Simpson. Glencoe III : Free Press.
- J. Douma, Christian Morals and Ethics, 신원하 역 (1997). 개혁주의 윤리학.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